# 교황청 대표단 "종교 넘어 세계평화"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대표단**
**8월 3일, 서울 진관사 방문**
**법해 스님 "마음 모아 화합"**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공동대표단은 8월 3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나눴다. 사진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과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공동대표단이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를 찾아 종교 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교황청 종교간대화부(장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는 8월 3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종교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갖고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몬시뇰 차관을 비롯해 신부와 수녀 등 공동대표단 35명,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강대에서 열리는 '제1회 유교-그리스도교 학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학회 공식 일정에 앞서 진관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법해 스님에게 진관사 소개를 받은 후 전통문화연구원으로 이동해 차담을 나눴다.

법해 스님은 "종교를 넘어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도량인 진관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며 "불교의 자비와 가톨릭의 사랑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지만,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마음을 모으는 종교이고, 우리 역시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인류 행복과 세계평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황청과 한국불교, 그리고 진관사가 사회화합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쿠바카드 장관은 "사찰이라는 공간은 다른 종교인에게도 불교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다른 종교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 평화는 곧 인간의 마음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뜻을 갖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종교 간 상호 이해를 굳건히 하고 공동체 간 우정도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오늘 진관사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피어나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후 대표단은 짧은 명상을 체험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법해 스님은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의 경쇠를, 쿠바카드 장관은 바티칸 액자를 선물했다. 끝으로 쿠바카드 장관은 '평화가 깃든 진관사의 아름다움이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방명록을 남기며 진관사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기자칼럼

## 생명나눔을 사리로 남긴 회향

고승의 원적 뒤 다비식에서 수습되는 사리는 평생에 걸친 수행의 결정체로 여겨진다. 사부대중은 사리 앞에서 스님의 청정한 삶과 수행을 기리며 신심을 다진다. 그러나 사리만이 참된 수행자의 증표는 아닐 것이다. 최근 원적에 든 창원 성주사 혜월당 범허 스님의 마지막 행보는 수행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준다.

범허 스님은 7월 24일 세수 67세, 법랍 28세로 입적했다. 전남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에서 하안거 정진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지 열흘 여만이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제방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묵묵히 참선에 전념해 온 수좌는 끝내 좌복 위에서 생을 마쳤다. 수행자의 장엄한 회향이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숨을 거둔 뒤 더욱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남은 사대육신까지도 중생에게 모두 회향하고 싶다"는 생전의 원력에 따라 스님은 심장과 간, 폐를 비롯한 장비와 피부 조직을 기증했다.

중증 환자 네 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화상 환자는 스님의 피부를 이식받아 다시 삶을 이어갈 희망을 얻었다. 수행자의 육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을 살려낸 기적이 된 것이다.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이타행의 실천이다. 스님은 임종게에서 "올 때도 한 물건 없었고 갈 곳 또한 없으니 평생의 회한이 달빛 속에 부서진다"고 읊었다. 평생 닦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루던 마지막 육신마저 중생에게 온전히 내어준 스님의 이타적 행보는 〈금강경〉이 설하는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의 구현이다.

다비장에 남은 오색 찬란한 구슬만이 사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과 상처 입은 피부 위에 새롭게 돋아난 살결 역시 범허 스님이 세상에 남긴 빛나는 사리일 것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美 국방부 군종부, '불교성전' 전군에 첫 배부

**창설 250년 만, 육·해·공군 군종실**
**태고종 스님들 美 군종포교 핵심 役**



미 육군 군종법사 혜정 스님(왼쪽)이 은사인 태고종 북미 · 유럽교구 회주 종매 대종사에게 새로 발간된 미 군종용 불교성전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태고종 북미·유럽교구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성전〉을 공식 배부했다. 미군 내 불교가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적 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이 과정에서 태고종 스님들이 미국과 주한미군 군종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회주 종매 대종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군종부(Chaplains Corps)는 7월 20일 미 육·해·공군 각 군 군종부와 예하 부대 군종실에 군종용 〈불교성전〉 'The Teaching of Buddha'를 공식 배부했다. 성전은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됐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종교 활동 지원을 위해 창설된 미국 군종부는 올해 창설 250주년을 맞았다. 현재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의 군종장교 약 3000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각 군 군종참모는 통상 소장 계급이 맡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불교성전〉은 미국 군종부의 의뢰를 받아 샌프란시스코 미불교진흥회(Society for the Promotion of Buddhism)가 군포교용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표지에는 미군 군복 색상을 적용해 장병들이 군장 속에 자연스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260쪽 분량의 성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해 사성제와 팔정도, 삼법인, 연기, 중도, 해탈문, 정토사상, 마음정화 수행, 불자의 동료애, 재가불자의 수행법 등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군종실을 통해 장병들에게 제공돼 수행과 상담, 종교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전 배부는 미군 내 불교 군종포교의 성장과 함께 태고종 스님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미·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활동하는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5명이 태고종 스님이며 국내 주한미군 부대 군법사 역시 태고종 스님이 맡고 있다. 국내외 군종 현장에서 태고종이 불교 군종포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 육군 군종부 미남부 군종모병소장이자 군종법사인 혜정 스님(소령·Somya Malasri)은 이번에 제작된 성전 가운데 3권을 은사인 태고종 북미·유럽교구 회주 종매 대종사에게 전달했다. 혜정 스님은 종매 대종사에게 성전의 편찬 취지와 구성, 미국 군종포교 현황 등을 함께 설명했다.

종매 대종사는 초대·2대 교구 종무원장을 지내며 북미·유럽 포교의 기틀을 세웠다. 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용어 2800여 개를 영어로 알기 쉽게 풀이한 〈한영불교사전〉과 영문 불교 개론서를 집필해 서구에 한국불교를 전하는 언어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 관계자는 "미 군종부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부된 것은 미군 불교포교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 육군 불교 군종법사의 과반과 주한미군 군법사를 태고종 스님들이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성전 배부가 국내외 군포교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6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험하는 불교"**

전통 불교문화의 진수와 최신 트렌드가 어우러진 '2026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6~9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렸다. 227개 업체가 참여해 355개 부스를 꾸린 올해 박람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박람회가 청년에게는 신선한 영감을 선사하고, 세대와 계층을 이어주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개막 첫날 박람회장을 방문, 다채로운 부스를 살폈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 태고종, 군포교 보폭 넓힌다

**7월 27일, 해군작전사령부 격려**
**28일 해군교육사령부서 첫 수계**
**총무원장·종회의장, 육군 법회**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육군과 해군을 잇달아 찾아 수계법회와 위문 활동을 펼치며 군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병들의 신행활동 지원은 물론 군포교 기반 확대와 장병 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으며 포교 외연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7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군포교와 장병 복지 지원에 나섰다.〈사진〉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태고종도 장병들이 신심을 바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맡은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진 스님은 해군작전사령부에 위문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곽 사령관에게 반가사유상과 염주, 향, 부채 등을 선물했다. 이어 스님들은 군함을 찾아 함장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살폈으며,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참배한 뒤 군 장병들의 신행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보시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총 700만원이다.

상진 스님은 다음 날인 28일에는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보국사에서 제726기 해군 신병 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로 나선 상진 스님은 이날 해군교육사령부 수계법회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태고종의 군포교는 해군에 앞서 육군에서도 이어졌다. 상진 스님은 7월 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3000명에게 수계하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25일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같은 장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이 최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 수계법회, 해군작전사령부 위문 방문 등을 잇달아 이어가며 군포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고종은 "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포교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부처님 자비 정신이 군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임은호 기자

## 불교계, 경북 수해민에 긴급구호 활동 펼쳐

**더프라미스 · 나누며하나되기**
**안동 · 의성에 맞춤형 지원**



최근 경북 곳곳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안동과 의성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더프라미스 재난복지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 팽목마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마을을 방문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거처를 옮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안동시 팽목마을에서는 침수된 공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빗자루와 옷걸이, 빨래집게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가구에는 여름용 토퍼와 이불 세트, 제철 과일 등을 전달했다.〈사진〉

의성 구계리 마을에서는 수해민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로당 2곳에 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95세 어르신에게 토퍼와 속옷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쌀과 반찬거리도 지원했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도 7월 27일 안동시청에서 '안동시 수해민 긴급구호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쌀, 주방·세탁 세제, 신발 등 3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이현희 기자

## 국가봉사견 존엄한 삶 위해 협력

**조계종 중신회, (사)마침표와 MOU**
**입법청원 · 입양 캠페인 등 추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와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마침표(이사장 이영)가 국가봉사견의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처우 개선 강화에 뜻을 모았다.

중신회와 지속가능발전연구소마침표는 7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가봉사견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청원 홍보 및 불자 참여 독려 △은퇴 국가봉사견이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공동 입양 캠페인 추진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제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이다.

정원주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이 은퇴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국가봉사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입법 청원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 이사장은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봉사견 복지 향상과 입법 추진을 위한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